

# 尹, 방미 첫날부터 스리랑카 등 9개국과 양자회담 강행군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정상외교전  
스리랑카와 기후변화협력 체결 약속

수교 30여년 만에 부룬디의 첫 회담  
이어 체코·덴마크 등과 협력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부터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릴레이 양자회담을 하며 9개국 정상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순방 첫날 가졌던 동포간담회도 생략하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상외교'를 최후의 필승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부산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개발협력과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교역·투자 협력 협정' 추진과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텔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고, 관광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적 교류 증진, 통상 분야 교류 증진 등을 논의했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18일(현지시간) 9개국 정상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한-산마리노 정상회담, 한-부룬디 정상회담, 한-체코 정상회담, 한-덴마크 정상회담, 한-몬테네그로 정상회담,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한-세인트루시아 정상회담,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아 내륙 국가로 인구가 3만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BIE 회원국으로서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메 부룬디 대통령과도 1991년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메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메 대통령은 "아프리카

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운전 전에 한국 기업 참여를 비롯해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과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녹색 전환 분야에

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평가하며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점 논의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

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알카타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인트루시아 조셉 피에르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 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젤코 콥시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 위원장과 1995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車 수출 날개... 14개월 연속 증가율 두자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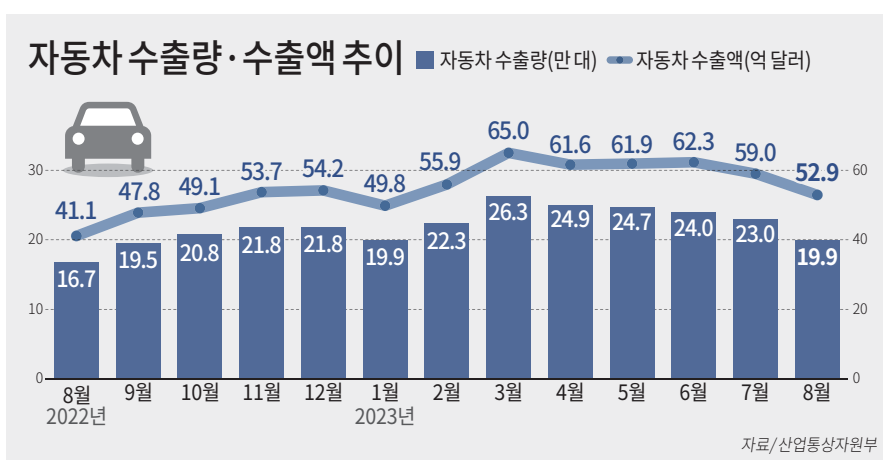
산업부, 지난달 52.9억 달러 수출  
전기차 수출 증가율 61% 급증  
총 수출액 3분의 1 친환경차 차지

자동차 수출이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공약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월 대비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로 가면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지난달엔 7월 대비 10% 수준 줄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고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



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대응한 결과, 친환경차 판매가 미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호조세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노려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2022년 약 5% 수준에서 지난달 55%까지 끌어올렸다.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대비 153% 증가한 1만

4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를 상회했다. 유럽연합(EU, 66.2% ↑), 오세아니아(40.0% ↑), 중동(29.3% ↑), 중남미(17.0% ↑), 아시아(15.2% ↑) 등 주요 시장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은 2%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1%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13만 대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인구절벽 대응따라 세계경제 지형 바뀔 것”

추경호 부총리, 중장기전략위 참석  
“韓, 변화대비 중장기 전략 수립 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9일 '인구절벽' 등과 관련해 지구촌 각국의 대응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에 맞춰 우리나라가 중장기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장관의 자문 기관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한국 경제의 도전요인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도 변화에 대비할 중장기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중장기전략 수립 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현인회의로서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경제 재도



약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장을 비롯한 전략위원 19명이 참석했다. 또 미래 세대 의견을 대변할 기재부 청년보좌역과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글로벌 대격변기에 대응한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창의력·도전정신의 혁신역량과 소통·공감의 포용역량 등 국민의 집합적 역량 강화”를 언급한 뒤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AI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전략위원들은 앞으로 미래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함께 △산업혁신 △인재양성 △경제안보 강화 △포용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